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 있다.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번 유엔 《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써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편이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 발사는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게 대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 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핵전쟁접경으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

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선책을 고려하고있다는 주제넘은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거거품을 물고 분주량을 피우고있다.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 않게 덩치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짓어대는 물결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찔것은 다 친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새로운 이따위 제재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

숙히 천명한다.

첫째,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생물로 되어야 한다는 날강도적론리이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둘째,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 귀를 기

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 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있는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말것이다.

셋째,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의 강토를 피바다, 불바다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고 세기를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있는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뒤끝방썩덕공론을 벌려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예돌지 않고 끝까지 갈것이다.

주체 106(2017)년 8월 7일  
평양

### 정의의 힘으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쳐갈길것이다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강대국인 미국과 그의 강권에 놀리워 불의에 맹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8월 6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의》 제2371호를 조작해내는 국제적범죄를 저질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번 《제재결의》가 조작되자마자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매우 큰 경제적충격이 있을것이라느니, 결의 채택에 협조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명한다느니 뭐니 하며 큰일이나 친것처럼 놀아대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아랫것들은 저저마다 《북정권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희미운 소리들을 쉼대고있다.

일본수상 아베 또한 재빠르게 나서서 이번 《제재결의》를 높이 평가한다느니, 대조선 압력을 한단계 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너스레를 떨고있다.

미국의 제재위협에 겁을 먹고 손을 들어준 체통값 못하는 나라들은 뒤가 썩겨났는지 제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고있다. 같지 않은 피뎠다까지 쫓아내서서 허바닥을 내밀고 우리더러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

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 미국의 공포와 불안의 산물이고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이발빠진 늑은 승냥이가 미국이 무서워 불의라는것을 알면서도 손을 든 주대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의 나약성과 비굴성에 의해 유엔의 이마에 큼직하게 찍혀진 치욕의 락인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치솟는 보복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힌다.

1. 날강도 미제가 주도하고 그에 맹종한 비렬한들이 작당하여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특대형레로범죄로 락인하고 전면적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전의 그 어느 페이지에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 나라의 자위적인 군사력강화조치를 문제시할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그림자도 없다.

더우기 이번 《제재결의》 역시 지금까지 유엔이 꾸며낸 모든 대조선 《결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날강도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낸 범죄적문건으로서,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린채 극단적인 편견과 불의에 물젖은 악마의 도구,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도용되어 통과시킨 불법무법의 문건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휴지장만큼도 치부하지 않으며 이를 리행하라고 불어대는 객적은 나발을 달밤에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것이다.

최악의 멍치덩이에 불과한 이런 《제재결의》가 그 누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그 무슨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개꿈은 없을것이다.

2.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날강도적행위가 절정에 이르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제적인 정의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세계는 각성되어가고있다. 세계정치구도는 각성된 인민의 지향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지고있다.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과 전략적지위도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이러한 때에 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강그리 빼앗고 한 민족의 명줄을 완전히 조이자고 달려드는 승냥이무리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비상히 강화된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3. 이 기회에 세계의 량심앞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정의롭고 인정된 새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큰 나라의 주장이라고 해서 옳은것이 아니

고 다수라고 하여 정의가 되는것이 아니다.

중세기에 지구가 돌고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것은 몇사람이었고 그를 반대하며 범죄시한것은 때무리였지만 결국 진리는 력사와 더불어 승리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조도 량심도 의리도 다 버리고 미국에 추종하여 불법무법의 《결의》에 손을 들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고 상전의 눈에 든 나라들은 세계의 량심앞에 수치를 느껴야 하며 력사와 인류의 엄정한 심판장에서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응분의 값을 치르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은 불의가 독판치며 정의를 심판하고 전횡과 독선이 살판치며 진실을 매도하는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각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이 그 얼마나 정당당당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병진의 길에서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예돌지 않고 끝바로 앞으로만 질주해나갈 철의 의지를 다시 굳은 세상에 선언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힘으로 날강도 미제가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쳐갈길것이다.

주체 106(2017)년 8월 8일  
평양

# 조국 해방의 환희를 조선 민족

## 민족앞에 쌓으신 조국해방의 크나큰 업적

8월 15일은 조국해방의 날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인민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70여년전 해방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던 민족제생의 봄이었던가.

1945년 8월 15일은 역사책사로 결박되었던 조선민족이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독립만세의 우뢰소리로 바다가 끓고 산이 진동한 날이었으며 조선의 열, 조선의 기상과 혈맥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었다.

우리 겨레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군대병력수는 겨우 1만명도 안되었었다. 그나마 무장장비라는것은 화승총밖에 없었다. 그런 허술한 군력으로 대포와 함선을 가진 침략군대와 맞서싸워 나라를 지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망국은 군력이 약한것으로 하여 초래된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고종이 조약체결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들어야 한다고 하자 《군주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피치만한 일》이라고 하며 황제의 비준도 옥새날인도 없는 가짜조약문서라는것을 세상에 공포한 날강도 일제이다. 그 조약이란 조약이라는것이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나라없는 실음에 목놓아울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잠겼던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해 날조된 《을사5조약》이었다.

망국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남나로소모두가 눈물겨운 국제보상운동도 벌였고 민족적 의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군활동도 벌렸다. 또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도 벌려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으로도 독립의 뜻을 이룰수 없었다.

원한의 하늘, 피눈물의 바다에 갈갈한 아들뿐이던 이 땅에 민족제생의 밝은 빛을 뿌려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해방의 은인은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수난많은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여서 겨레가 당하는 피로움과 슬픔을 뼈에 새기신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아버님이 쓰시던 버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실 때 이 나라의 운명은 그이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려있었다. 그이께서는 14살 어린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애국의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하며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력사의 철리를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독립신념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벌리는 데 있다는 선군사상을 밝히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와의 대전을 선포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언제나 조국과 겨레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주석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협산준령, 사선의 천만고비들, 파란만장한 철혈의 로정을 여져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었던가. 그이의 항일대전의 만단사연

이 자자구구에 담겨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구독한 한 재미동포인민은 이루 말 할 수없던 감점과 격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라 회고록의 갈피를 걸잡을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적시였다고 하였다.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정면대결은 수령님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위인만이 조직전개하실수 있는 가장 힘겨운 조국해방성전이었다.

대부대와 소부대의 활동을 배합하는 전술, 동성적격의 전술, 일행천리전술, 약한 적, 피로한 적, 해이한 적을 골라서는 전법, 갈지자모양으로 행군하다가 굽인돌이에서 되돌아갔어 따라오는 적들을 담배가 전법, 옆으로 슬쩍 빠져 적들로 하여금 제편끼리 싸우게 하는 신묘

한 망원전술 등 동서고금의 어느 병서나 군사교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비한 유격전법과 전술은 전체적인 군사적지지를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신술कु불하며 천변만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술과 전법은 일본복군의 《꽃》이라고 하던 100만 관동군이 사시나무 멸듯 전멸하였다.

1936년 말부터 1937년초에 진행된 일제의 《동기대토벌》을 지휘한 대장이라는자는 그 때를 회상하며 《나는 눈우에 력력히 남아있던 김일성장군부대의 발자취가 홀연히 없어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은 뻔한 사실인데 강 건너 언덕에 발차기 하나 없는것이라든가를 지금까지도 알수 없다.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에서 잤는지 알수 없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병서나 용병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렇듯 천변만화하는 지략과 전법으로 만주별관에 일본군의 시체가 나뭇갈래 하고 보춘보, 무산지구 등 조국땅 곳곳마다에 해방전의 불길의 지퍼 울리신 백두산청년장군의 혈전의 로정을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는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어 일제의 전진항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일찍이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시면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데 대하여 밝히신 그이께서는 1936년 5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어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희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동북지방과 바다 건너 일본의 오카야마를 비롯한 방방곡곡에 부재살처형 퍼졌고 각종 인민들의 맹활등으로 조국해방의 그날을 더욱 앞당겨오게 하였다.

민족의 주체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실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무리히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개시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어 해방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시였다.

진정 위대한 주석님은 도란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는 은인이시며 지리멸렬되여가던 이 나라의 명맥을 다시 이어놓으시고 영원한 번영과 통성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이다.

해방의 그해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무기를 잡고 분연히 일어서서 일본의 강퍽한 야만군대를 대항하여 용전분투 20년! 황막무연 만주땅에서 친형의 국경을 돌파하고 북조선일대에서 일본군대를 전멸케 하던 우리의 민족적영웅!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시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이다.》

조선인민이 전통적으로 경축하는 8.15명절을 축하하면서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던 나라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선인민의 세기적원인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력사의 이날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인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빛나고있다고 전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날을 맞은 때로부터 어언 70여년이 흐르고 강산도 물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항일대전의 혈투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주석님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빛나고있다. 주석님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의 하나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다 죽었던 민족의 운명을 소생시키신 해방의 업적이다. 겨레는 이 크나큰 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대전사의 갈피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들중에는 그이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항일대전의 불길기 새차례라 번지던 1941년에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가 언제면 해방될가?

왕청당 차피겨우마음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모여앉으면 그 소리뿐이었다. 나라를 잃고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이국살이를 하고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은 일일천추로 바라는 소원이었다. 그런 데 그 무렵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 불길한것들뿐이었다.

1941년 봄에는 쓰련과 일본이 화친을 하였다든 소리가 들었고 여름에는 도이칠란드군대가 쓰련을 침공하였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였다.

《들려오는 소문이 하도 흉흉하니 아마 내 당대에 고향

땅에 가보긴 글렀는가 보네.》 마을의 좌상로인이 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한때 쓰련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마을에서 계몽활동을 하는 젊은이가 말을 달랐다.

《도이칠란드군대가 땅크 비행기로 무장한 170개 사단의 대

《그러니 언제 독립이 된다 는건가? 딱히 짚어 말 좀 하 게나.》

《글쎄요. 10년후에 되겠는 지, 20년후에 되겠는지...》 젊은이는 갑자기며 씨익한 말을 못하였고 마을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 4년후 이루어진 조국해방

병력으로 들이쳤으니 이제 모스크바도 얼마 못가 먹히우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 유일한 사회주의국가가 없어지면 조선독립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난 좌상로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야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지 않나?》

그러자 젊은이가 로인의 말을 긍정하였다.

《그러야 두말할것 있습니까?》

로인이 다시 되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 잠시 그 마을에 들리시였다.

막혔던 물목이라도 터진듯 그이를 뵈우려고 모여든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군님, 우리 조선이 언제쯤 독립될니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명망의 불가피성,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전과를 알려주시는 주석님께서서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리시고 확신을 찬 어조로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심신을 북돋아주시였다.

주석님의 말씀에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환성을 울리였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손꼽아 해방의 날을 학습고대하였다. 한해가 가고 두해가 지나고 세해째가 되는 해에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네해제인 1945년 8월 드디어 일제가 망하였다는 감각적인 소식이 동북의 그 외진마을에도 날아들었다.

주석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지 꼭 4년만에 조국이 해방된 것이다.

기쁨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에게 좌상로인은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파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 분명쿠나. 그렇지 않구서야 칠후같이 압당하던 시절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단 말이고.》

김원식



개 신문

# 최후 승리의 환희로 이어가자

## 제국주의 침략의 마수에서 민족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위대한 은인

해마다 8월이 오면 누구나 조국해방 만세의 환호성이 강산을 진감하던 8월 15일을 먼저 생각한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재생의 넓은 길에 열린 뜻깊은 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겨레가 더욱 가다듬는 진리가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 지켜지고 더욱 빛을 뿌리게 된다는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봉건왕조 500여년간에 국왕력강화를 몰시한데로부터 우리 나라의 점차 힘이 약해져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화해되었고 나중에는 외세에게 통째로 먹히지 않았던 안티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비극적운명은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이 행성의 철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은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도 다시는 범접할 수 없게 무적필승의 군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강국에 대한 민족의 역사적인 숙원을 현실로 꽃피워 주신 위대한 민족의 은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이다.

공화국의 자주권을 위협해나설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실 데 대한 탁월한 전략로선을 제시하신 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장거였다.

자신께서 로케트를 사랑하는 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며 주제의 핵강국, 로켓강국건설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으신 시련의 언덕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추격되었던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는 남모르는 그 낮과 밤들에 경애하는 원수님 자신의 심장에 먼저 내리셨을 피를 흘려 돌격구렁이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몸소 전략탄도로켓의 총설계자, 제1선전투원인 철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새형의 로켓개발의 험로경정을 한치처럼 일어나가시었다.

지난 7월 27일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친필명령을 내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리며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할데 대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셨듯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셨는 악의 제국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언하시고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게 신신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 데 이어 또다시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으로 우뚝 울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백두의 천출명장,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령토가 크고 자원이 많아 대국이 아니라 위대한 명장을 모시어 강대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오늘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은 온몸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다.

조국해방의 사변적인 명절이 일흔두번째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이 시각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수 있는 조선의 핵무력은 이렇게 선연하는 듯하다.

위세가 다하는 이 땅에 침략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부국강병을 안아온 선군천만리

조국을 잃으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 잃은 설움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을 한겨레라도 더 주어야 성새를 높이 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피 어린 항일혁명 20년을 총화하시면서 후세에 남기신 간곡한 당부이다.

장강 70여년 세월 반제반미대결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어제도 오늘도 민족의 생사존망이 무엇에 달려있고 부국강병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철리 부시고 가르쳐주는 고귀한 유언이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인민의 역사는 일제를 대신하여 또다시 조선민족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짓 부시고 국가의 운명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반미대결의 역사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최대의 열점지대로, 동서맹전이 종식된 이후 제국주의 열강과의 가장 치열한 대결장으로 된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자면 군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였다.

일찌기 조선을 빛내시길 승고한 사명감과 총대의 귀중함을 온 넋으로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께서는 선군을 평생의 혁명신조,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실천에 옮기게 구원하시어 부국강병의 새 역사를 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심상해치오신 선군길은 순풍에 돛을 단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의의 위엄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필승의 락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회세의 선군령장만이 걸으실수 있는 애국헌신의 길,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1960년대에 이어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넘어 새 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길은 조국수호와 군력강화의 천만리이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의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평,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적대세력들이 기고만장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 때에 국헌신으로 헤쳐가신 다박솔초소로서의 시절은 선군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군력강화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려는 드립없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철령의 험한 경길,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과 관문점의 새벽길,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입으신 야전솔움은 지금도 장군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헤쳐오셨는가를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나는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선군장정의 길을 걸고 또 걸을것이라고 하시며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눈보라강행군, 삼복돌강행군, 심야강행군과 같은 초강도강행군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이다.

반미대결은 불과 불이 오가 지 않을뿐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전선이 나라와 민족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제일전선이었기에, 그 길에서 한치라도 주춤하거나 물러선다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이 통락당하기에, 총알보다 쌀을 먼저 생각하면 인민이 또다시 적대세력의 노예가 되겠기에 그이께서는 선군길을 걸고걸으시었다.

반세기를 헤아리는 오랜 세월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자욱은 인민군대의 5 200여개 단위에 새겨져 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2월

에도 대련합부대 화려라적훈련을 지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적인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위협과 진성도발책동을 단배에 제압할수 있는 인민군대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에는 사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시며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도록 혁명하게 이끄신 장군님의 로고와 심정이 들 어있는것이다.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다.

총대로 인민의 운명과 국가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시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선군천만리가 있어 오늘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의 지위에 오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선군령도도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련승하시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신 장군님을 칭송하여 인디아의 저명한 사회계인사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령도자는 조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세계수심익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하늘을 주신 대성인이시이다.

제3차 세계대전과 세계대일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주시어 력사와 시대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력사는 국사를 책임지고 국가방위와 번영을 위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위인들의 애국헌신을 전하는 감동깊은 일화와 사실들을 수많은 기록하고있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비범한 령도력과 애국의 헌신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불패의 강국을 세우주신 명장중의 명장, 장군형의 정치가들 알지 못하고있다.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도 부국강병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

## 8월이 왔다

리송일

해방의 긍지로 부풀던 가슴이  
분별의 아픔으로 사그라지던  
뼈저린 날들이었다  
내 지금껏 맛고 보낸 8월들은

우리의 주체란들 평음에 기절조풍  
흔비백산한 미제의 물골

그러나 오늘은 나의 마음에  
끝없이 밀려드는 감격의 파도여  
얼마나 환희로운가  
《화성-14》형의 비행음에 실려온  
우리의 8월, 해방의 날 8.15는

그 쾌승을 안고 8월이 왔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오늘도 력력한 항일의 자욱  
더욱 빛내이고 더 높이 떠받들며

우리러 우리러  
8월의 태양같이 눈부시여라  
조국해방작전의 최후공격명령 내리시던  
항일빨치산의 김대장처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 펼치시는  
우리의 김정원수님!

갈광질방 가련하기 그지없어라  
우리의 해방을 동강내 침략자미제  
이런 날이 울출 몰랐으니  
《해방자》의 락을 쓰고  
내 조국 남녘에 기여들던 그날엔

그이는 이미 선언하셨되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그 경사로운 4월의 열병시주석단에서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그런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고

이제라도 돌이켜보라, 미제야  
장진호반에 묻힌 얼음귀신들  
1211고지의 《상심령》, 《화정골》...  
그 쓰디쓴 교훈 망각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다  
치열한 참패만을 당해온 세월들을

허나 오늘도 정신 못차린 미제  
분별 잃고 핵용동이 휘두르니  
불은 불로, 핵은 핵으로  
그이는 단호히 명령하셨다

우리의 거머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소굴로 돌아갈 대신  
객적은 나발질, 일백진 장난질 계속 한다던  
우리의 핵조준경안에 든 미제  
항복서에 도장 찍을놈도 없으니

—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우리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 8.15를  
우리 민족 분별의 날로 만든 미제  
그 구린내나는 상동  
또다시 이 땅에 들어민다면  
침략의 소굴 아메리카  
송두리째 불바다, 재더미되리니

— 당중앙은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할것!

우리는 핵보유국 조선에  
해방의 8월이 왔다  
미제를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겨레 통일만세 목청껏 부를  
완전해방의 날을 부르며  
삼천리에 8월이 왔다!

— 2차시험발사를 승인한다.  
28일 밤에 발사할것!

아, 통쾌하여라  
다발적, 련발적 퇴성 터치는



#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발을 뉘쳐댄 괴뢰당국은 가장 참혹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고하며 이 행성을 들었다놓은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케트시험발사의 련이온 대성공에 혼비백산한 미국이 6일 초라하기 그지없는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이 불법무법의 범피문서를 조작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도 우리의 초강력대응이 두려워 긴장해하고있는 때에 한갓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괴뢰들이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대며 북대기속의 쥐새끼소리를 내지르고있는것이다.

유엔 《결의》가 채택되자 괴뢰청와대들은 누구에게 선손을 때울세라 쫓따 나서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결의안이 채택된것이 중요하다.》느니, 《중국어 로씨야가 제재에 합의한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느니 하고 허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제넘은 망발을 뉘쳐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외교부것들은 이번 《제재결의》 채택으로 북의 외화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느니,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 통로를 차단하는데서 실효적인 의미가 있다느니, 북에 상당한 타격이 될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으며 필리핀을 행각하고있는 괴뢰외교부 장관 강경화년은 《유엔결의의 성공적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다.》,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효과가 있을 내용들이 담겨져있다.》고 입부리를 마구 놀려댔다.

그것도 모자라 괴뢰외교부는 대변인론평이라느니를 통해 유엔 《결의》 제2371호채택을 환영한다느니, 북의 핵, 미사일개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할것이라느니 하면서 북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유엔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미친 수작을 꺼리낌없이 늘어놓고있다.

그야말로 동족을 외세의 아가리에 밀어넣어 서라도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천하역적무리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친미사대매국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에 따른 정정당당한 선택이며 이번 대륙간판도로케트시험발사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에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보수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매한것을 계속한다면 모 든것을 잃게 된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개심할 기회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우리의 인내와 아량을 악용하여 그 무슨 《독자제재》를 운운하다못해 미국상전의 범죄적인 대조선제재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서슴없이 뛰어들고있다.

이 추악한 행태는 괴뢰들이야말로 미국상전과 한쪽이 되면 되겠지 달리는 될수 없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미국산 삼살개, 보수패당에 조금도 짝지지 않을 동족대결광신자무리이며 남조선 각계층이 이런 천하의 정치속물

들을 놓고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것을 푹푹히 보여주고있다.

괴뢰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결의》에 함세해나서는것으로써 저들의 《대화》라령이 결국 속에 없는 결발린 수작이며 우리를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상대하겠다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제재와 압박소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괴뢰당국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미치광이 트럼프패거리들이 《전쟁불사》를 뉘쳐대고있는 참예한 정세와 그것이 어떤 파국적대참사를 불러오겠는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괴뢰패당은 어리석고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린다면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것은 물론 순간에 모든것이 끝장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발을 뉘쳐댄수룩 괴뢰당국은 더욱더 참혹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제 106 (2017) 년 8월 7일 평 양

## ○ 각 계층 군중들의 분노의 목소리 ○

### 제재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악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으니 뿔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누를길 없다.

미국의 제재나 봉쇄파위에 결코 놀랄 우리가 아니지만 한사코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미국과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뜨우려고 달려드는 미국놈들과 결판을 내자는것이 우리들의 격양된

심정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까지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에 최후의 파멸을 안기기 위한 총결사전에 한결같이 떨기해나서고있다.

우리 도인민위원회안의 전체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자강도인민위원회  
과장 김명철

### 경거망동하지 말라

미국이 저들의 거수기들을 내몰아 그 무슨 제재라는것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조선이 핵을 포기하게 압박한다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화국이 핵을 쫓게 어제오늘도 아니고 대륙간판도로케트의 시험발사성공도 련겨져 이루어진 상태이다. 미국에 맞서 자위를 위해 핵을 쥐고 대륙간판도로케트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이룩한 오늘에 와서 적대세력들이 제재와 위협을 더 가한다고 해서 물러서고 핵을 내려놓으리라

생각하는 미국이야말로 어리석은 나라가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 매년이면 조선이 핵을 대륙간판도로케트에 태워 자국본토에 날릴 능력을 완성한다고 떠든다는데 매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준비되어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견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가 어떤것인가를 푹푹히 보여줄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사진  
황금철

### 강패국가가 《평화》를 떠든다

미국이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반공화국 《제재결의》란것을 또다시 조작하면서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케트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든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를 만들고 인류의 머리우에 핵무기를 서슴없이 떨군 유일한 나라인 미국,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지고있으며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상대로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한 강패국가, 불량배국가인 미국에게 과연 《국제평

화와 안전》을 떠들 체면이나 량심이 있는가.

마치 저들이 《평화의 수호자》라든가 되는것처럼 추종국가들을 내세워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또다시 꾸며낸 미국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밀뿌리채 흔드는 지구상의 암적존재이고 강패국가이다.

인류의 정의도, 도덕도 모르는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미국과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제재와 압박이 가해진다 해도 우리 공화국은 이미 완성한 자위의 핵억제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것이며 평화수호

를 위한 강력한 정의의 퇴성을 계속 올려가게 될것이다.

### 《화성》은 미국을 정조준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대륙간판도로케트시험발사를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백악관과 미국방성의 우두머리들이 저마끔 나서서 《예방전쟁》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폭언을 내뱉고있으니 정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오산하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명수

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세계최강의 대륙간판도로케트, 원자탄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이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멧없이 날뛰는 승냥이무리의 선군조선의 핵강타로 씨도 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우리 전략군의 《화성》탄도로케트들이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멸적의 불을 토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는것을 미국은 푹푹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군관 정호성

### 불속에 뛰어들려는 전쟁부나비

유엔의 거수기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질식시키고 말살하려는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이 한쪽으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방안을 뉘쳐대고있는데 정말 가소롭기

짜이 없다.

그 무슨 《선제타격》을 떠들어대면서 자기앞에 닥쳐온 죽음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국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를 방불

케 하고있다. 하기가 힘이 약한 나라들만을 골라가며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만 전쟁을 해온 미국놈들이 진짜 전쟁맛이 어떤것인지 알기나 하겠는가.

지금 미국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다종다양한 전략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의 준대를 갖추고 미제침략군의 중동을 에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선제타격의 권리가 저들에게만 있다고 오산하면서 군사적공격방안을 만지작거리려는

### 진짜 전쟁맛을 보여야

미국놈들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다가 요새는 뭐 《예방전쟁》을 하겠다고 떠든다는데 조선과의 전쟁이 어떤것인지 아직 푹푹히 모르는 놈들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보충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던 미국놈을 때려놓은 영웅조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핵이 있고 수소탄도 있다. 각이한 사거리의 핵운반수단들도 다 개발하고 실

미국에 우리 식의 선제타격과 최후수단까지 불사하겠다는것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배짱이다.

우리 전체 로농적위군대원들은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제국주의 침략의 괴수인 미국놈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고야말겠다.

로농적위군 대원  
김진철

전배비하고있다. 대양건너 미국까지 몇십분이면 핵을 날려보낼수 있는 대륙간판도로케트들도 보유하고있다.

이런 핵강국과, 더우기 미국이라면 증오와 복수심에 이를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상대로 그 무슨 《예방전쟁》을 치르겠다고 제 죽을줄도 모르고 날치는 가련한 미국이 아닐수 없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리철수



침략과 전쟁을 막는 정의의 핵

오늘 공화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존엄높은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공화국의 핵은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존엄은 곧 생명이며 생존권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공화국이 왜 허리를 조이면서 그것도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속도로 핵을 보유했는가. 그것은 미국의 핵위협,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풍습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은 미국이며 조선전쟁을 강요하고 민족의 머리에 원자탄을 퍼부으려고 책동한 것도 미국이다.

정전후부터 오늘까지 미국은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무기 저장고로 만들어놓고 공화국과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더 악랄해지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공화국은 부득불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과 제재소동에 맞서 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도 이루하였다.

작고 힘이 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몰아가며 치는 미국이 것처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감히 다치지 못하는 것은 공화국의 강력한 군력이 두려워서이다. 그러한 미국에 이제 조선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 있으니 미국의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다.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 능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오늘 미국은 극도의 공포감에 잠겨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의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아온 제국주의 미국에게 선군조선이 내린 과멸의 선고이며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조선민족의 대승리이다.

수소탄을 비롯하여 행성의 절대병기들을 손에 쥐고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전략잠수함탄도탄까지 보유함으로써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으며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침략과 전쟁을 막는 정의의 핵, 민족의 존엄을 빛내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재부를 가지고있는 것은 조선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본사기자 고성호

수필 자기의 것에 대한 금지

며칠 전이었다.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가던 나는 어느 식료품상점에 들리었다.

상점안은 저저마다 자기 기호에 맞는 식료품들을 사는 손님들로 붐비었다.

5살난 아들에게도 제법 자기가 먹고싶은 것을 골랐다.

《엄마, 이 <금집> 빵을 사주세요.》

《빵들이 참 많구나.》

《난 <금집> 빵이 제일 맛있어요.》

국내산식료품들이 그득한 상점에서 저저마다 상품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에 호호하였다.

이 식료품상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어디를 가나 봉사단원들이 전례없이 흥성이고 있다.

식료품, 화장품, 신발, 피복제품은 물론이고 전자제품, 체육기자재 등 국내산상품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은 그 가지수가 날이 다양해지고있고 맛도 좋아 사람들속에서 《우리 식료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금집》, 《선홍》, 《경홍》, 《동라》, 《옥류》... 어느 상점에 가보아도 국내산식료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있고 《우리 식료품》을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식료품만이 아니다.

신발매대에 가면 《류원》 신발이나 《매봉산》 구두를 신어보며 《확실히 우리 신발이 좋거든.》 하고 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취이 들을수 있으며 화장품매대에 가면 《봄향기》, 《은하수》, 《선녀》 화장품을 사며 즐거운 미소를 짓는 녀성들을 볼수 있다.

옷매대에는 《은하》, 《대성》 상표의 세련되고 우아한 옷들이, 이불매대에는 《만복》 상표의 고급이불들이 사람들의 눈을 끌고있으며 대동강건재공장의 제품들은 거리와 살림집들을 아름답게 장식해간다.

학생들의 어깨에는 《민들레》 학습지가 들어있는 《소나무》 가방이 척 없혀져 그들을 배움의 창가로 정정하게 떠밀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국내산상품이

제일이다.》고 엄지손가락을 쳐든다.

국내산상품!

얼마나 좋은 말인가. 국내산상품들은 날로 높아지는 문명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으며 생활에 우리의 멋과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위성으로부터 최상의 문명의 절경들이 끝없이 늘어나는 이 땅의 재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의 것인것으로 하여 더욱 자부심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는 우리 지하철동차가 달리고있다.

세인을 놀래우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이 약동의 숨결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다름아닌 자강력제일주의이다.

변이 나는 이 세월의 숨결과도 같고 이름과도 같다. 끝없이 터져오르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적들의 밀뿌리이며 격동의 이 시대의 가슴벅찬 시대어들이 끝없이 태어나게 하는 비옥한 토양과 같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변함없이 공화국인민들은 언제나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것으로 만들어왔다.

자기의것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과 믿음, 지향은 바로 자기의 손으로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게 했고 막강한 주체적국방공업의 토대를 닦아 하였으며 CNC의 거세찬 열풍속에 온 나라를 비약의 한길로 출달음치게 하였다.

날로 늘어나고 그 질도 높아가는 국내산상품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용품들이기 전에 자기의것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법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가꾸어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신념의 반영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자강의 힘이 있어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류레없이 악랄한 제재와 위협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번영할 미래로 확신성있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김춘경

출렁이는 바다물도, 모래물도 있다

— 운하바다물수영장에서 —

온몸이 땀에 젖어드는 요즘같은 삼복철에 사람들이 즐겨찾아가는 곳은 해수욕장이 있는 시원한 바다가이다.

하지만 멀리 바다에 가지 않더라도 내륙에서 해수욕의 진미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운하동에 새로 일떠선 운하바다물수영장이 바로 그러하다. 바다물수송관을 통해 멀리 바다물이 수도도의 한복판에도 흘러들게 되어 이제는 내륙에서도 바다물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민들에게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이곳 바다물수영장은 해수욕의 별미를 느끼게 해준다.

연 건평이 1700여㎡인 운하바다물수영장에서는 바다물수영과 일광욕, 한

중과 목욕을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손님들이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료리들을 봉사하는 식당도 있다.

조선서해의 바다물로 해수욕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고있는 운하바다물수영장은 물의 정제와 소독, 물갈이를 매일 진행하고 있어 사람들이 항상 깨끗한 바다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영장은 투명한 천정으로 흘러드는 햇빛으로 하여 마치 야외에서 수영을 하는듯 한 느낌을 주면서도 실내의 특성에 맞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좋아한다.

또한 특색있게 꾸려진 한증방에서는 손님들이 소금한증과 황토한증, 소나무한증을 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특별히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것은 2층에 있는 일광욕장이다.

투명한 유개로 처리된 천정으로 흘러드는 햇빛을 받으며 바닥에 깔아놓은 모래와 자갈우에 누워 사람들은 바다가의 진미를 느끼기도 한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김광성은 바다물수영장이 일떠섰다는 소식을 듣고 안해와 함께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운가족이 함께 바다물수영도 하고 식사도 하니 쌓인 피로가 순간에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서 사는 리금옥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여 바다에까지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수도한복판에 바다물수영장이 생겨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요즘은 거의 매일이다 싶어 이곳을 찾는다고 말하였다.

운하바다물수영장 책임자 차금향은 서해의 바다물이 수도에 흘러들게 된

데는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사랑, 그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봉사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간다고 하였다.

지금 풍치수려한 보통강만에 자리잡고있는 이곳 운하바다물수영장은 삼복의 무더위를 시원한 바다물로 식히려는 손님들로 매일 흥성이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국산화된 첨단기술제품들 연구개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의 과학자들이 국산화된 첨단기술제품들을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가운데는 CNC플라즈마절단기, 레이저3D인쇄기, 레이저종자처리장치, 가정용적산류량계 등이 있다.

CNC플라즈마절단기는 플라즈마발생부와 처리되는 제품의 운동을 컴퓨터로 정밀조종함으로써 단순한 모양을 가진 제품은 물론 복잡한 형태를 가진 대형형판도 균일하게 절단하는 첨단수준의 설비이다.

종래의 플라즈마절단기들은 거의나 수동식들로서 고온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는데다가 사용자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다보니 절단면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플라즈마절단기는 해당 도형화일이 입력된 USB기억기를 설비에 연결하고 전원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인식, 조종되어 짧은 시간에 절단물이 나오게 되어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이다. 제품의 가공시간과 로력, 원가를 최대한 줄이는것으로 하여 현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레이저3D인쇄기는 레이저기술을 리용하여 3차원모형을 가공하는 설비로서 형태제작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수 있다.

이 설비로는 CNC설비로도 가공하기 힘든 제품들도 손쉽게 가공할수 있는데 지난 시기 수입설비들에서 필수적이던 탱크소자와 같은 값비싼 부품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레이자종자처리장치는 레이저빔을 리용하여 식물유기체의 면역기능과 성장기능을 높여줌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이 장치로 식물에 대한 레이자작용의 기본인자인 조임시간을 임의로 변화시키면서 시간특성이 서

로 다른 각이한 종류의 종자들을 처리해본데 의하면 종전에 비해 세분화축진이 빨랐고 가물 및 병견딜성이 매우 강해졌다.

구조가 간단할뿐아니라 12V축전지를 전원으로 리용하는 이 장치는 임의의 장소에서 종자를 처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실용적가치가 매우 크다.

국산화된 가정용적산류량계는 소형화, 저전력화가 실현되었으며 기본지표인 측정오차가 앞선 수준의 제품들에 못지 않다.

이 류량계는 타빈식으로서 흐르는 류체속에서 가벼운 날개바퀴의 회전수가 흐름속도 또는 류량에 비례하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번에 개발된 가정용적산류량계는 수도꼭지에 연결할수 있으며 내부전원을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대단히 실용적이다.

또한 기계적수행부가 합리적으로 설계된것으로 하여 류속이 너무 작아 측정이 불가능한 무감도대역을 줄이고 전기적신호

속의 잡음을 처리하여 측정오차도 줄일수 있다.

이번에 국산화된 가정용적산류량계의 개발로 전국의 모든 가정들에 필요한 류량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절약되게 되었으며 많은 전력과 물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는 항산화능력과 면역조절작용, 항염증작용을 획기적으로 높인 나노셀렌올리고당교갑, 이산화염소를 국내산원료를 리용하여 다량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는 이산화염소발생기등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산화된 첨단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려는 불같은 열정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